

【대기아동 해소에 밝은 징조!】

안녕하세요,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.

지난 4월 1일 현재, 보육원과 인정 어린이집 등에 입학 하지못한 대기 아동의 수가 551명(전년도 비 298명 감소)으로 발표했습니다.

551명이라는 수는 아직 큰 수치이고 더욱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번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목표인 2019년도 말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「밝은 조짐」이 드디어 보인다는 것입니다.

그 이유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.

- 육아휴직퇴원제도 폐지 등의 영향이 약화되어 과거 2년 평균 약 800명을 넘어섰던 입학신청이 376명으로 떨어져 안정된 것.
- 일정한 수준이 담보된 인가 외 보육 시설을 포함한 보육 시설 확보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(전년도는 1,780명분)는 것.

시로서도 지금까지의 다소 기다리는 자세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해 자세히 사정을 들으면서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소개하는 「다가가는 지원」으로 바꾸었습니다만, 아직 침투되어 있지않고 이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약 600명분 비어있는 실태도 밝혀졌습니다.

현재는 이러한 불일치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10명의 보육 안내원(보육이용자 지원원)이 세심한 매칭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4월에만

100 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롭게 입학했습니다.

향후 보육 안내에의한 다가가는 지원과 연도중의 탄력적 수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년 4 월을 위해 이미 1,000 명 분을 넘는 수용시설 확보를 할 전망이 서 있어 많은 보호자 여러분이 이용하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.

그러나 이런 밝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, 유아교육 무상화의 영향은 미지수이며 보육사 부족 문제도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.

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도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와 사정에 세심하게 다가가 하루라도 빨리 보호자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, 보호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보육 안내원에게 상담 해 주셨으면 합니다.

또한 지인중에 보육 이용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
※보육 안내 연락처

취원관리과	: 8 0 3 - 1 4 3 1
키타구 중앙복지사무소	: 8 0 3 - 1 2 0 9
키타구 키타복지사무소	: 2 5 1 - 6 5 3 0
나카구 복지사무소	: 9 0 1 - 1 2 3 1
히가시구 복지사무소	: 9 4 4 - 1 8 2 2
미나미구 니시 복지사무소	: 2 8 1 - 9 6 2 0
미나미구 미나미 복지사무소	: 2 3 0 - 0 3 2 1